

「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」 주요내용

- ◇ 품목·지역 다변화 등 구조적 개선 방안 추진 + 무역금융·마케팅·해외인증 등 수출 인프라 보강
- ◇ 경제단체·업종별 협회 등 건의를 토대로 수출 현장으로 해소 추진

	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	유망분야 新수출동력 확충
수출 품목 다변화	국가첨단전략산업(반도체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바이오) ▶ 유턴기업 투자지원 확대(보조율: 現 29% 수준→改 최대 50%) ▶ 중소중견기업 기술 상용화 저리융자 신설(기업당 50억원, 금리 1.33% 적용) 반도체 ▶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 추진 ※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 첫번째 사례 이차전지 ▶ 산학융합인재 특성화 대학 신규 선정(3개교) ▶ 이차전지특화단지 용수공급시설 구축 지원*(포항) *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총사업비의 5~30% 국고지원 가능 바이오 ▶ ‘보스턴-코리아 프로젝트’ 등 R&D 국제협력 추진 ▶ 엑셀러레이터 플랫폼 신규 구축 → 年 10~15개 기업 맞춤형 지원 조선 ▶ 하반기 RG 발급 확대* + 무보 RG 특례보증 2천억원 신규 공급 * (삼성) 8월~ 최대 49억불 추가 공급, (중형조선사) 하반기 3.3억불 추가 공급 ▶ 제조사(조선사)도 친환경선박 인증 신청 허용(現 발주사선주만 신청 가능) 자동차 ▶ 컨테이너선으로 대체 이용시 위험물 검사수수료 할인 적용 확대	ICT·디지털 ▶ ICT 융합품질 인증 확대 →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판로 확대 ▶ 브랜드-K 선정분야 확대(現 콘텐츠 등→改 ICT/SW 서비스 추가) 화장품 ▶ K-뷰티 홍보관(‘23.4분기), 해외 화장품 판매소(‘24년) 확대·운영 콘텐츠 ▶ K-콘텐츠 전략펀드 1조원 규모 조성 추진(‘24~’28, ‘24년 0.6조원) ▶ 대형 콘텐츠 제작지원용 신기술 인프라 구축(‘24년 250억원) 농수산식품 ▶ 농식품 전용 수출바우처 대폭 확대(‘23년 44→‘24년 328억원) ▶ 연말까지 딸기 등 주요 신선식품 물류비 지원 확대(최대 15→25%) 에너지 ▶ 전력공기업-국내 기자재 업체 해외동반 진출 인센티브 강화 ▶ 수소연료전지발전클러스터 신규 조성(포항, 1,918억원, ‘24~’28) 녹색산업 ▶ 현지전담팀(전문가+기업) 구성 → 인니(9월), 콜롬비아(11월) 파견 ▶ 기업 1:1 맞춤형 수주 전략수립·지원 실시(9월~, 20건 이상)
수출 지역 다변화	주력시장(미국·중국·아세안 중심) 정부간 협업 ▶ 한중경제장관회의 및 한중경제교류협의회 연내 개최 추진 ▶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조치 → 개발금융기관간 인프라 협력 확대 해외진출 지원 ▶ 공공기관 해외투자사업 예타 기간 단축(現 평균 5개월 소요) 현지 거점 구축 ▶ (현지 지원) 미국 내 반도체 팹리스 협력센터 신설 ▶ 미국·일본 내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신설 ▶ (물류센터) 미국(LA)·베트남(하노이)에 해외물류센터 추가 확보	新전략시장(중동·중남미·EU 등) 정부간 협업 ▶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강화 위한 화상협의 지속 추진 ▶ 우크라이나 대상 KSP, EIPP 사업발굴 ▶ 사우디 대규모 프로젝트 진출을 위해 연내 한-사 인프라위원회 추진 해외진출 지원 ▶ 고위험·저신용국 수주 위해 수은 특별계정 2,500억원 추가 조성 ▶ 대규모 프로젝트 지원 위해 무보 무역금융 확대(‘23년 17.8→‘24년 20조원) 현지 거점 구축 ▶ 중동 등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현지 거점무역관(지원센터) 확대* * (원전) 10→16개소, (방산) 20→31개소, (플랜트) 7→11개소
인프라 보강	무역금융 ▶ 수출기업 자금 애로해소를 위해 민간·공공이 합동으로 연말까지 최대 181.4조원* 무역·수출금융 공급 * 무역금융 잔액 158.6조원(‘23년 공급계획 364.5조원 중 집행잔액) + 민관합동 수출금융 22.8조원(공공 17.4조원 + 민간(은행 우대상품) 5.4조원) 마케팅 ▶ 해외전시회 지원 확대(기업당: ‘23년 12.6→‘24년 15.1백만원, 기업수: ‘23년 5,478→‘24년 5,646개사) + 선급금 지급률 10%p 상향 ▶ 수출실적이 없는 신기술 창업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유망 해외전시회 발굴·지원 ▶ K-브랜드 마케팅 지원 대상 확대: (現) 드라마, 예능 → (改) 뮤직비디오, 인플루언서 콘텐츠 추가 수출바우처 ▶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(‘23년 1,441억원(3,473개사) → ‘24년 1,679억원(3,984개사)), 지원 항목(메뉴판*) 추가 * 유향물질 검사, 국내 소재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현지 사후관리 대행 서비스(A/S) ▶ 수출바우처 지원 신청 시기 분산(年 1회 → 2회 이상) + 수출바우처 수행기관 지정방식 개편(사후정산 방식 추가 확대) 해외인증 ▶ 의약품 해외 자동승인제도 대상국 확대를 위한 MOU 추진(現 에콰도르→改 남미국가 추가) ▶ 한-싱가포르간 제조관리기준(GMP) 평가 결과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 물류·통관 ▶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보세공장에 대해 허가기준 완화(10월) ▶ 부산항 수출 컨테이너 반입 가능 기한 확대 협의 지원(접안일 3~4일전 → 중소화주에 대해 5일전) + 부산항 신규터미널 준공(12월) ▶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(서류 간소화, 전산화 등) 및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서류 축소(500 → 350종, 9월) 인력확보 ▶ 연내 4만명 외국인 고용허가서(E-9) 발급 등 쿼터 추가 확대* + ‘24년 쿼터 지속 확대 * 비전문인력(E-9) 1만명 추가(4분기 쿼터 3만명→4만명), 숙련기능인력(E-7-4) 3만명 추가(‘23년 쿼터 5천명→3.5만명)	
현장 해소	▶ 전국 순회를 통해 수출 애로를 현장밀착형으로 해소하는 ‘원스톱 수출 119’ 확대 운영(월 2회 이상 개최) ▶ 여권사용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한 해외 영업 지원, 수출기업에 대한 조달 인센티브 강화 등 수출기업 지원 및 현장으로 해소	